

#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 가족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Single Mothers

- Focusing on Family and Social Variables -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김 오 남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bul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Kim, Oh Nam

##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and differences factors influencing singl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nalyze the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variable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were the 284 single mothers living in Kwangju and Chonnam.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t, F, and Pearson's r test, and by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Single mothers' family variables were lower than the median, but instrumental support was higher than emotional support. Singl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found to be around that of the median value.

2. Single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mother-child conflicts, income, emotional support, participation of education program, and institutional support.

3. Life satisfaction of single mothers was influenced by institutional support,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and emotional support. Depression among single mothers was influenced by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mother-child conflicts, and institutional and emotional support.

**주제어(Key Words):** 한부모 여성가장(single mother),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가족적, 사회적 변인(family, social variables)

## I. 서론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은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와 2000년 사이 이혼가구수는 3만 5천에서 30만 8천으로 약 11배 정도 증가하였고, 사별가구수는 45만 5천에서 133만 9천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통계청, 2002). 특히 최근 10년동안 1991년 11.8%이던 이혼율이 불과 십여년 만인 2002년에는 47.4%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통계청, 2002).

최근 이러한 부부관계해소 현상은 전체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바로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화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여성가장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Hanson, McLanahan & Thomson, 1998). 이러한 빈곤과 함께 여성가장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소득의 원천이자 사회적 지원의 주요 통로였던 남성부양자의 상실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과중한 역할부담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고, 주거나 의료문제에 있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함과 동시에 가족지원체계의 감소, 노동시장전반의 성차별, 이중적인 복지체계, 사회의 부정적 인식, 주택 및 의료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다영, 2003; Hetherington & Anderson, 1989).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빈곤,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 대처, 적응 등을 주로 다루었으나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들(성정현, 2002; 정수경, 2001; 최선화, 2000)도 등장하여 이들을 위한 실천과 적용점을 찾고자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한편 가족원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궁극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생활만족도 등의 긍정

적인 측면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것(장재정, 1987)으로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되는데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가족적 수준의 변인과 사회적 변인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적 변인들에서 홀로된 원인에서 이혼보다는 사별한 경우 (김오남, 1998; Doherty Su & Needle, 1989), 가족스트레스는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오남, 1998; 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가족지원이 여성가장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1998; 신화용, 조병은, 1996). 모자녀갈등도 심리적 안녕을 감소시키며 친밀한 모자녀관계는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1999; Umberson, 1989). 전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조적이었다면 심리적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ursik, 1991), 또한 가족소득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이 높게 나타나(Simons, Whitebeck, Beaman & Conger, 1994; Umberson, 1989), 가족적 변인들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변인으로는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우(Greene & Feld, 1989; Simons et al, 1994), 지지집단이나 교육, 워크샵 등의 형태도 유용한데 특히 지지집단과 사회참여는 모자가족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다(Kiston & Raschke, 1981). 이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지지집단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이 한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바가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송다영, 2003) 이는 지원의 양과 내용에 있어 여성가장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은 가족적 변인, 사회적 변인들과 다양하게 관련되므로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 심리적 안녕과

그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향상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지와 제도적 지원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영분과 양심영(1999)은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을 살펴본 결과 가족의 요구에 민감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제위기이후 가족해체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여성가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빈곤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인 문제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족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이 자녀양육과 교육, 생계유지, 다중역할,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고 여성가장의 가족적, 사회적 변인들에 따라 심리적 안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사회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가족적, 사회적 차원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은 가족적, 사회적 차원의 변인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안녕의 개념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은 행복, 적응, 삶의 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 생활주기나 시대적 배경, 공간적 환경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심리적 안녕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심리적 안녕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접근 방법이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입장으로, 복지의 중요 예견변인으로서 객관적 조건 및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감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생활만족도를 강조한 경우이다(이희정, 이숙현, 1995; Kopp & Ruzicka, 1993).

두번째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보는 입장으로, 정서적, 주관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심리적 안녕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분석하였다(장재정, 1987; Andrew & Withey, 1976; Greene & Feld, 1989). 따라서 심리적 안녕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척도가 일관성있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최근의 연구들은 생활만족도, 자존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심리적 안녕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을 조사한 결과 일반가족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최해경, 1997; Doherty et al, 1989; Marks, 1995),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생활만족도의 경우 자존감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오남, 1998; Bursik, 1991; Gove & Shin, 1989; Mastekaasa, 1994). 또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외로움, 소외 등 주로 부정적인 면을 다뤘은 선행연구들(김오남, 1998; Marks, 1995; Shapiro, 1996)에서는 우울 등의 변인점수가 낮은 경우 심리적 안녕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

의 심리적 안녕이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 다중역할의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심리적 안녕을 다룬 연구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측면을 중심으로 심리적 안녕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관련변인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의 예측변인을 연구함에 있어 가족관계,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가족적 변인

가족적 변인에는 홀로된 원인,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갈등관계, 전배우자와의 관계, 가정월 평균소득 등이 포함되었다. 사별한 여성가장보다 이혼한 여성가장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동시에 높다고 한 연구들(Demo & Acock, 1996; Shapiro, 1996)도 있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별과 이혼한 여성가장이 한부모가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점이나 홀로된 과정자체가 다르고 그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여건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안녕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가족스트레스는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가족생활의 질, 생활만족도, 우울(Pittman & Lloyd, 1988)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가족스트레스 인지는 높은 부정적 정서나 행복과 관련되어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김오남, 1998; Greene & Feld, 1989; Simons et al, 1993).

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자원을 살펴본 신화용과 조병은(1996)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가족관계적 자원,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가

족자원 중 경제적 자원이 여성가장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도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가족이 건강할 때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도 낮게 나타났다(김오남, 1998; Bowen, Orthner & Zimmerman, 1993).

일반적으로 모자녀갈등은 심리적 안녕을 감소시키며 부적응적 자녀행동을 유도한 반면 친밀한 모자녀관계는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Peterson & Zill, 1986; Umberson, 1989)고 하였다. 자녀는 여성가장에게 지지원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녀와의 접촉이나 개방적인 대화는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1998; 최해경, 1997; 한경혜, 1993; Demo & Acock, 1996). 또한 한부모가족 모자녀관계연구에서 조성연(2004)은 여성가장과 청소년기 자녀들과 다소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여 발달단계와 모자녀관계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여성가장에게 자녀가 주는 의미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며 더불어 모자녀관계는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전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사별이나 이혼 후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Brown & Reimer, 1984; Price-Bonham & Balswick, 1980). 이들 연구는 애착의 존재유무에 초점을 두었으나 대부분 Bowlby의 애착이론으로부터 출발하며 애착의 긍정적, 부정적인 차원을 본다.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최상이다는 견해이다. 즉 이혼이나 사별 후 애착은 사랑이나 호의보다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끊는 이별 디스트레스(seperation distress)를 반영하므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이다(Berman, 1985; Kiston, 1982)는 것이다. 둘째, 이혼의 경우 전배우자와의 관계조정이 가능하면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즉 전배우자와 관계가 협조적, 우호적이었다면 심리적 안녕에 도움이 되고 갈등적이었다면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이라는 견해이다(Bursik, 1991). 이처럼 애착의 역할은 떠난 사람과의 관계, 그리움을 평가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별보다는 이

혼에 있어 더 중요하다. 배우자와의 유대가 지속되는 경우 특히 이혼한 사람의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되나, '애착'은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데 선행연구들(Kiecolt-Glaster, Laura, Paula, Julia, Carl, & Ronald, 1987; Jacobson, 1983)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가족소득수준이 높은 여성가장들의 심리적 안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imons et al, 1993; Umberson, 1989). 즉 소득수준은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으로 관련되는데 이혼과 배우자사별은 대부분 가족소득 감소를 초래하므로 소득의 감소는 결혼붕괴와 관련되어 특히 문제시 된다. 특히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혼한 여성가장은 사별한 여성가장과 비교할 때 소득감소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성림, 2004; Gove & Shin, 1989). 따라서 소득은 전반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변인

사회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교육프로그램참여, 제도적 지원, 직장근무시간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에 있어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친구와 친척은 여성가장에게 특히 이혼 후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며(안명자, 1994; 한경혜, 1993; Gerstel, 1988; Plummer & Koch-Hattman, 1986), 특히 친구는 가족이 제공할 수 없는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한다(Price-Bonham & Balswick, 1980). 또한 가족들은 모자가족에게 동반자의 역할이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제공하며 자녀를 돌보아 주거나 임시로 거처할 곳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Bursik, 1991). 전반적으로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우 우울이 낮을 뿐만 아니라(Marks, 1995; Taylor & Roberts, 1995),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수준이 향상되었다(Greene & Feld, 1989; Simons et al 1993).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지지의 내용, 대상별 지지에 초점을 두

어 왔고 그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상실이나 이혼으로 인한 관계망의 축소나 상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지집단이나 교육, 워크샵 등의 형태로서 지지집단과 사회참여는 모자가족의 여성가장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Kiston & Raschke, 1981). 이혼자에게 집단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이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같은 상황의 사람들과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의사소통과 경청의 기술을 학습시키고 미해결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Bonkowski & Wanner-Welstly, 1979). 또한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대처의 모델을 제공하며 이혼으로 인한 강렬한 감정들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Langelier & Deckert, 1980; Bogolub, 1991 재인용). 허정원(1997)은 이혼 후 여성가장이 어떤 종류이든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 우울감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성정현, 2002)에서 자존감, 심리적 안녕,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은 집단 전후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오랜시간 누적된 심리적, 정신적 상처가 6-8회 집단프로그램참여로 변화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편모가족개입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박영희, 1999), 편모가족 관계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정수경, 2001) 등이 소개되었으며 앞으로도 개방적인 집단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사회복지관 곳곳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지원에서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은 가족적 지원, 추가적 가족보호 욕구가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이용이 제한되었으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에 불안정하게 포함되었다고 하였다(송다영, 2003). 실제로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이 한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여(최해경, 1997)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가장의 직장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우울

이 높게 나타났고(Demo & Acock, 1996), 직장에서의 지지는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이었다(Parker, 1994). 따라서 직업과 관련된 근무 환경, 심리적 만족이나 지지가 심리적 안녕과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자녀교육의 절정기로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대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가장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2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과정에서 지역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전남 3개군의 구성비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고,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의 도움으로 모자가족의 자녀중심으로 어머니용 설문지를 각각 배부하여 집에 가서 여성가장이 설문지에 직접 기입토록 하였으며 설문은 끝낸 후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3년 6월 2일에서 10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부 수정보완한 설문지로 2003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520부를 배부하여 475부가 회수되었으며 대상과 내용기재가 완전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28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여성가장의 연령은 40대가 전체의 63.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에서는 중졸과 고졸이 36.6%, 35.9%로 각각 나타났고, 직업에서 자영업 판매직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서서비스직이 21.5%, 기타 20.8%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80만원이하가 34.0%, 81-120만원이 43.8%로 저소득층이 분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홀로 된 기간은 2-5년이 49.3%를 나타내었고 6-9년은 25.2%, 10-14년은 25.5%를 각각 나타내었다. 홀로 된 원인은 사별이 69.0%, 이혼이 31.0%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근무시

간은 8시간이하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10시간이 28.5%, 10-12시간이 21.4%, 12시간이상인 18.3%로 각각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서 참여는 35.5%,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64.5%, 제도적 지원을 받는 여부는 받다가 20.3%, 받지 않다가 79.7%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공 연구자들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hronbach'  $\alpha$ 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 1) 가족적 변인

가족적 변인으로는 홀로된 원인, 가정 월평균소득,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관계, 전배우자와의 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홀로된 원인은 사별과 이혼으로 국한하였으며, 가족스트레스의 도구는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경험한 사건에 따른 긴장이나 부담정도를 스트레스인자로 정의하였다. 스트레스인지는 각각 27문항이며 가족관계(6문항), 재정적 문제(5문항), 여성가장의 직업-가정갈등(6문항), 대인관계(6문항), 건강 및 상실(4문항) 등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총 27문항 점수범위는 27-135점이다.

가족자원척도는 McCubbin & Comeau(1987)의 FIRM(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하위영역은 가족원이 지각하는 경제적 향상, 소비자의 지불능력, 타인에게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나타내는 재정적 복지(6문항), 가족원간의 존중감, 긍정적 감정표현, 의사결정시 의사소통 등을 나타내는 가족의 건강도 I(Family Strength I: 가족존중감과 의사소통-6문항), 계획실행능력, 가족원간 격려, 일을 성취시키는 능력 등을 나타내는 가족의 건강도 II(Family Strength II:

속달감과 성취-7문항)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총 19문항 점수범위는 30-150점이다.

모자녀관계는 Barber(1994)의 부모자녀간 갈등척도(Parent-Children Conflict Scale)를 사용하는데 자녀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자녀의 옷입는 방식, 자녀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 현재 자녀가 어울리고 있는 동성친구, 자녀의 귀가시간, 집안일에 대한 서로의 의견충돌, 자녀의 성욕구나 성행동, 자녀의 술 담배 등의 허용여부, 자녀의 돈쓰는 방식, 자녀의 학교생활 등의 모자녀 갈등과 자녀가 가족과 다정하게 지내지 못하는 내용 등에 관한 갈등정도를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수범위는 10점-50점이다.

전배우자와의 관계는 과거에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갈등적이었다(1점)에서 매우 우호적이었다(5점)까지로 측정되었다.

## 2) 사회적 변인

사회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교육프로그램 참여, 제도적 지원, 직장근무시간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McCubbin & Comeau(1987)의 FIRM(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5문항), 정서적 지지(6문항)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총 11문항 점수범위는 11-55점이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점, 참여한 경우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제도적 지원도 지원여부를 지원받지 않음 0점, 지원 받음 1점으로 측정되었다.

## 3) 심리적 안녕 척도

심리적 안녕척도는 생활만족도와 우울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생활만족도는 Bradburn(1969)의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과 Olson과 Barnes(1982)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척도를 수정하여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즉 일상생활의 만

족, 어머니(자녀)와의 대화만족, 나의 위치나 역할에 대한 만족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12점-60점이다.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가시게 느끼지 않았던 일에 대해 귀찮게 느낌,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도 우울한 기분, 일에 몰두가 안됨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수범위는 14점-70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한 Ch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는데 가족스트레스는 .856, 가족자원은 .852, 모자녀갈등 .894,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는 .830, 정서적 지지는 .832, 생활만족도는 .840, 우울은 .890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처리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통계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가족적 변인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 가족스트레스, 모자녀갈등관계나 긍정적 의미를 갖는 가족자원과 전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모두 3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족스트레스와 모자녀갈등이 높지 않게 나타난 점이며 반면 이러한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주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정 월평균소득은 117만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

〈표 1〉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 인		M(SD)
가족적 변인	가족스트레스	2.86( .52)
	가족자원	2.94( .50)
	모자녀갈등관계	2.54( .71)
	전배우자와의 관계	2.87( .56)
	가정 월평균소득(만원)	117.00(56.80)
사회적 변인	도구적 지지	3.50( .68)
	정서적 지지	2.50( .74)
	직장근무시간(시간)	9.80( 2.14)
심리적 안녕	생활만족도	3.01( .59)
	우 울	3.06( .70)

가 정서적 지지보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구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부모가족 여성가장들이 비교적 저소득층으로서 제도적 지원대상이 상당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1로 보았을 때 .36이며, 제도적 지원에서는 지원받음을 1로 보았을 때 .20을 나타내었다. 심리적 안녕에 있어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01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평균 3.06으로 나타났다.

## 2.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 1)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가족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가족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갈등관계,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기준은 〈표 2〉, 〈표 3〉 하단에 제시하였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가족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에 홀로된 위인,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갈등관계, 가정 월평균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혼집단 보다는 사별집단, 가족스트레스가 낮다고 인지한 집단,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한 집단, 모자녀간 갈등이 낮은 집단, 월평균 소득이 121만 이상인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갈등관계, 가정 월평균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생활만족도에서와 같이 전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족스트레스가 중간과 낮다고 인지한 집단,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한 집단, 모자녀간 갈등이 낮은 집단, 월평균 소득이 121만 이상인 집단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와 모자녀갈등은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을 위해서 가족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모자녀간 갈등이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그 갈등에 대한 대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요구되며 실제 실천현장에서 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해결 등의 집단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자원이나 가정 월평균소득 등 현실적인 생활이 필요한 요소들에서 불가피하게 심리적 안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때 무엇보다도 재정적 자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에 사회적 지지인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교육프로그램참여, 제도적 지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하루평균근무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정서적 지지, 교육프로그램참여, 제도적 지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표 2> 가족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가족적 변인		심리적 안녕	N(%)	생활만족도			우 울		
				M	F	D	M	F	D
홍로된 원인	사별 이혼		196(69.0)	36.98	***		42.74		
			87(31.0)	33.69	13.24		43.09		
a 가족스트레스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89(31.3)	39.96	**	A	36.32	**	B
			128(45.1)	37.73	6.50	B	37.41	7.13	B
			67(23.6)	36.15		B	40.65		A
a 가족자원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47(16.5)	31.00	***	C	46.51	***	A
			185(65.2)	35.65	33.31	B	43.30	10.56	A
			52(18.3)	41.52		A	37.96		B
a 모자녀 갈등관계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57(20.1)	41.73	***	A	38.30	**	B
			187(65.8)	35.73	22.93	B	43.29	5.18	A
			40(14.1)	31.20		C	45.00		A
전배우자와의 관계	갈등적임 중간임 우호적임		85(29.9)	36.33			40.33		
			175(61.6)	37.89	.55		38.03	1.97	
			24(8.5)	37.60			37.57		
가정 월평균소득	80만 이하 81-120만원 121만이상		96(34.0)	35.65	**	B	38.98	*	A
			124(43.8)	34.63	4.79	B	38.09	2.93	A
			64(22.2)	38.98		A	35.71		B

\*p<.05 \*\* p<.01 \*\*\* p<.001

(a : 낮은 집단<M-SD, M-SD 중간집단 M+SD, 높은 집단>M+SD)

<표 3> 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

사회적 변인		심리적 안녕	N(%)	생활만족도			우 울		
				M	F(t)	D	M	F(t)	D
a 도구적 지지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35(12.3)	34.33	**	B	46.60		
			212(74.6)	35.65	5.83	B	43.16	.58	
			37(13.1)	39.20		A	43.23		
a 정서적 지지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39(13.7)	32.26	***	C	39.81	***	A
			192(67.6)	35.64	14.30	B	35.64	14.30	B
			53(18.7)	39.81		A	32.26		C
교육프로그램 참여	참여함 참여안함		99(35.5)	39.14	**		38.28	***	
			185(64.5)	36.05	7.75		42.52	8.51	
제도적 지원	받고있음 받지않음		58(20.3)	39.24	**		36.75	***	
			226(79.7)	36.89	5.68		40.04	9.12	
하루평균 근무시간	3-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이상		73(31.8)	36.52			37.83		
			66(28.5)	36.47	.28		38.32	1.13	
			49(21.4)	35.61			40.23		
			42(18.3)	34.65			38.30		

\*\*p<.01 \*\*\*p<.001

(a : 낮은 집단<M-SD, M-SD 중간집단 M+SD, 높은 집단>M+SD)

다. 반면 도구적 지지와 하루평균 근무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모자가족에서 심리적 안녕에 사회적 지지, 교육프로그램참여, 제도적 지원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3.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변인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가족적, 사회적 변인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047 < r < -.523$ 의 범위로 독립변수들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앞서의 차이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을 중심으로 개인적 변인으로는 모교육수준, 홀로된 원인, 건강, 자존감, 대

처를 가족적 변인으로는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모자녀갈등관계, 가정 월평균소득이, 사회적 변인으로는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참여, 제도적 지원 등을 선정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고, Durbin Waston계수(DW)를 산출한 결과 1,999-2,011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선성검증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0을 넘지 않으므로 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가족적, 사회적 변인들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에 도구적 지지,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정서적 지지, 제도적 지원, 홀로된 원인 등의 변인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40.97로 전체 생활만족도 변량의 45%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혼보다는 사별의 경우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중 우울에 가족스트레스,

<표 4>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 속 독 립	변 인	생활만족도		우 울	
		B	$\beta$	B	$\beta$
가족적 변인	홀로된 원인#	-1.55	-.09*	- .82	-.06
	가족스트레스	-5.42	-.28***	8.89	.46***
	가족자원	5.56	.27***	-4.56	-.29***
	모자녀갈등관계	- .80	-.05	4.97	.24***
	가정 월평균소득	1.42	.09	- .41	-.05
사회적 변인	도구적 지지	6.02	.29***	.09	-.03
	정서적 지지	2.92	.18**	-2.16	-.13*
	프로그램참여#	1.86	.10	-3.77	-.17**
	제도적 지원#	3.46	.13*	-3.38	-.15*
F		40.97***		42.14***	
R		.45		.47	

\*  $p < .05$  \*\*  $p < .01$  \*\*\*  $p < .001$

(#가변수- 홀로된 원인 : 사별=0, 이혼=1, 프로그램참여여부 : 비참여=0, 참여=1, 제도적 지원 : 받지 않음=0, 받음=1)

가족자원, 모자녀갈등관계, 프로그램참여, 제도적 지원, 정서적 지지 등의 변인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42.14로 전체 우울 변량의 47%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가족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모자녀갈등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여성가장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은 낮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가족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 모두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의 정도를 살펴보고 가족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차이를 살펴보고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모자가족의 적응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가장로서 284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안녕과 관련변인의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적 변인은 전반적으로 3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스트레스와 모자녀갈등이 높지는 않으나 이러한 수준을 유지내지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회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중 도구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보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구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부모가족 여성가장 대상자들이 비교적 저소득층으로서 지원대상이 상당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심리적 안녕에 있어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은 각각 3.01, 3.06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도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는 중간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결과(Demo & Acock, 1996; Mastekaasa, 1994)와 일치하며, 우울은 홀로된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될 수 있다(DeGarmo & Kiston, 1996; Marks, 1995)고 하였다.

둘째,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가족적 변인에 따라서는 홀로된 원인이 사별인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낮다고 인지한 집단,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한 집단, 모자녀간 갈등이 낮은 집단, 월평균 소득이 121만 이상인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가족스트레스가 중간과 낮다고 인지한 집단,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한 집단, 모자녀간 갈등이 낮은 집단, 월평균 소득이 121만 이상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홀로된 원인의 경우 사별한 여성가장이 이혼한 여성가장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들(김오남, 1998; Gove & Shin, 1989; Mastekaasa, 1996)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에서 사별보다는 이혼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존재한 것으로 짐작케 하며 특히 이혼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사회적으로 정상을 벗어난 비정상성이나 가족으로부터 결핍 등 상당히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이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스트레스의 관리가 되어야 하며 가족자원의 발견과 정확한 인지를 원조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자녀갈등은 모의 우울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모의 우울 감소를 위해서는 모자녀간 갈등이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그 갈등에 대한 대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모색이 요구된다. 실제, 이혼이든 사별이든 배우자의 상실은 자녀와 밀착된 애착으로 더 발전될 수 있으나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면 여성가장은 심리적 불안정감과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연구(성정현, 2002)에서 이혼여성들은 어린 자녀들이 불안정하거나 부모의 애정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일 때, 좀 더 성숙한 자녀가 또래들과 비행을 저지를 때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실천현장에서 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해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여성가장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학교세팅에서의 프로그램개발과 개입 등의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족자원이나 가정 월평균소득 등 현실적인 생활이 필요한 요소들에서 불가피하게 심리적 안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때 무엇보다도 재정적 자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별 후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자복지법의 공공부조는 미약한 수준이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사회적 변인에 따라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우울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집단에서 우울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사회적 지지는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들의 배려와 지지, 또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셋째,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중 생활만족도는 사별인 집단인 경우,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 모형의 결정계수는 40.97로 전체 생활만족도 변량의 45%를 설명해 주고 있다.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 중 우울은 가족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할수록, 가족자원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모자녀갈등이 낮을수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42.14로 전체 우울 변량의 47%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가족적 변인에서는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이

심리적 안녕에 핵심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족자원이 많은 경우(김오남, 1998; 안명자, 1994; Gerstel, 1989),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경우(김오남, 1998; Shapiro, 1996)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갈등은 모의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자녀갈등이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그 갈등에 대한 대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모색이 요구된다. 최해경(1997), 김오남(1999)의 연구에서도 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가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사회적 변인으로는 정서적 지지와 제도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많은 사회적 지지가 모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하나 모자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사회지지망이 협소하고 간헐적인 것으로 언급(강남식, 2001)하며 특히 이혼한 후 기혼친구들과 소원해지거나 중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족과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멀어지고 이로 인해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사회적 지지망은 축소되어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 2001)고 지적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 변인이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우 우울이 낮아지고(최해경, 1997; Marks, 1995; Talyor & Roberts, 1995),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수준이 향상되었다(김오남, 1998; Simons et al, 1993)다는 선행연구 또한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서는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관계망 형성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관, 정부, 지방행정기관 등의 실천적 서비스와 생계보장 방안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자체는 이들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참여는 여성가장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내용의 접근과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참여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홀로된 원인에 따라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가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별보다 이혼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최근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보이고 이혼에 대한 편견이 약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옥선화 등, 2004)고는 하나, 우리 사회의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모습을 벗어난 것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이나 사회적 대안 마련에 있어서는 이혼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한부모가족 가족기능의 변화와 회복방법으로 재혼에 관련된 정보제공과 재혼지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도 제안해 본다.

둘째,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때 모의 가족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가족 스트레스인지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가장에게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상담 경로를 통해 자녀와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심리적 안녕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족자원 경우에도 재정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교육 및 재교육, 역할교육 등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가족복지정책에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셋째,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우울에 모자녀간 갈등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자녀간 갈등이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그 갈등에 대한 대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가장의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우울감소에 영향을 준 연구결과로 볼 때 실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해결 등의 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겠

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교육이나 복지정책 시행에 있어 여성가장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여성가장과 자녀간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심리적 안녕 증진방법 등에 관한 공동교육 등이 필요하겠다. 또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조집단을 형성하고 자조집단관계망을 통한 상호지지의 활성화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또한 필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장의 정서적 지지는 생활만족도와 우울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 안녕 향상 방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반면 다른 가족유형보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은 형제자매, 친척, 이웃 등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외부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길은 너무나 가깝다.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국가주도형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며 더불어 기존 자원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지원여부는 여성가장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저소득 모자가구 사회복지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에서 제공하는 공공부조가 전부인데 빈곤탈피나 가계의 성장보다는 최소의 범위내에서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기여도는 낮다고 하였다(최해경, 1997).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은 물론이고 여성단체, 민간단체,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서 등에서 실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최저생계비 보장방안과 같은 사회의 공식적 지지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적 기관 및 정부는 공동주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립, 다양한 인터넷사이트 개발 등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원인별 분석, 변인간 경로유형 등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제안과 본 연구가 양적 연구로서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에 대한 보다 심층적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 ■ 참고문헌

- 강남식(2001). 성주류화 정책과 생산적 복지. 여성과 사회, 12. 창작과 비평사.
-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 박사논문.
- \_\_\_\_\_ (1999). 편모가족의 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복지학, 4(2), 63-80.
- 박영희(1999). 편모가족 개입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 53-92.
- 성정현(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9, 31-53.
- 송다영(2003).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된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295-320.
-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옥선화, 최세은, 권소영, 강유진(2004).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관계망지원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81-191.
- 이성립(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69-179.
- 이희정,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임재희(1995). 중년기가족의 가족스트레스, 자원, 우울증과의 관계분석. 효성카톨릭대 석사논문.
- 장재정(1987).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장혜경, 송다영, 김영란, 김정훈(2001).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 정수경(2001). 모자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 288-317.
- 조성연(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53-167.
- 최선화(2000). 편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또래 집단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6, 187-214.
- 최해경(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 통계청(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79-104.
- Andrew, F. & Withey, S.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Press.
- Barber, B. K. (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375-386.
- Barnett, R. & Baruch, G. K. (1985).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135-145.
- Berman, W. H. (1985). Continued attachment after legal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6, 375-392.
- Bogolub, E. B. (1991). Women and mid-life divorce: Some practice issues. *Social Work*, 428-433.
- Bounkowski, S. E. & Wanner-Westly, B. (1979). The divorce group: A new treatment modality. *Social Casework*, 552-557.
- Bowen, L. G., Orther, K. D. & Zimmerman, I. L. (1993). Family adaptation of single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army. *Family Relations*, 42(3), 293-304.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 Brown, S. D., & Reimer, D. A. (1984). Assessing attachment following divorce reaction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20-531.
- Bursik, K. (1991). Correlates of women adjustment during the separation and divorce process. *Journal of Divorce*, 15, 137-161.
- DeGarmo, D. S. & Kiston, G. C. (1996). Identity

- relevance and disruption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for widowed and divorce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83-997.
- Demo, D. H. & Acock, A. C. (1996).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388-407.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4), 705-715.
- Doherty, W. J., Su, S., & Needle, R. (1989). Marital disrup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A pane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72-85.
- Gerstel, N. (1988). Divorce and kin ties : The importance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209-219.
- Gove, W. R. & Shin, Hee-Choon. (1989).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vorced and widow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122-144.
- Greene, R. W. & Feld, S. (1989). Social support coverage and the well-being of elderly widows and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33-52.
-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 (1998). Windows on divorce : Before and after. *Social Science Research*, 27, 329-349.
- Hetherington, E. M. & Anderson, E. (1989). Marital transition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Jacobson, G. F. (1983). *The multiple crises of marital separation and divorce*. New York : Grune Stratton.
- Kiecolt-Glaster, J. K., Laura, D. F., Paula, O., Julie. C. S, Carl, I. S., & Ronald, G. (1987). Marital Quality, marital disruption and immune function. *Psychosomatic Medicine*, 49, 13-34.
- Kiston, G. C., Babri, K. B., Roach, M. J., & Placidi, K. S. (1989). Adjustment to widowhood and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5-32.
- Kitson, G. C. & Raschke, H. J. (1981). Divorce research: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4(3), 1-37.
- Kopp, R. G. & Ruzicka, M. F. (1993). Women's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Reports*, 72, 1351-1354.
- Marks, N. F. (1995). Midlife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6(1), 5-28.
- Mastekaasa, A. (1994).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rital dissolution select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15(2), 208-228.
- McCubbin, H. I. (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FILE)*. St. Paul Minnesota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 I., & Comeau, J. K. (1987). FIRM :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In H.I. McCubbin & A. I. Thompson(eds.), *Family assessment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pp. 145-160).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 Olson, D. H. & Barnes, H. L. (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Parker, L. (1994). The role of workplace support in facilitating self-sufficiency among single mothers on welfare. *Family Relations*, 43(2), 168-173.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295-307.
- Pett, M. A., Vaughan-Cole, B., & Wampold, B. E.

- (1994).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ived stress-their impact on children's adjust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young divorced and marrie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2), 151-158.
- Pittman, J. F. & Lloyd, S. A. (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1), 53-67.
- Plummer, L. P. & Koch-Hattman, A. (1986). Family stress and adjustment to divorce. *Family Relations*, 35(4), 523-529.
- Price-Bonham, S. & Balswick, J. O. (1980). The noninstitutions : Divorce, desertion, and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4), 959-972.
- Radloff, L. (1977). The CED-S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385-401.
- Schwartzberg, N. S. & Dytell, R. S. (1988).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Goldsmith, E.(Eds) *Work and family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 Shapiro, A. D. (1996). Explaining psychological distress in a sample of remarried and divorced persons. - The influence of economic distr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7(2), 186-203.
- Simons, R. L., Whitebeck, L. B., Beaman, J., & Conger, R. D. (1994). The impact of mothers' parenting, involvement by nonresidential fathers and parental conflict o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2), 356-374.
- Spanier, G. B. & Thompson, L. (1984). Relief and distress after marital separation. *Journal of Divorce*, 7, 31-49.
- Umberson, D. (1989). Relationship with children :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4), 999-1012.
- Whelan, B. & Whelan, C. (1995). In what sense is poverty multidimensional? pp. 29-48. in *Beyond the Threshold :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Policy Press.

(2004년 7월 15일 접수, 2004년 11월 2일 채택)